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9>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참선 공부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스승과 화두에 대한 가르침에 큰 믿음을 일으키는 것, 둘째는 화두를 꼭 타파하겠다는 큰 원력을 지니는 것, 셋째는 화두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하는 큰 의심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출중한 스승을 만나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세 가지 요건은 저절로 갖추어진다. 믿음과 원력과 의심이란 올바른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여건이 주어지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가 모두 살아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가슴을 적셔 주는 '살아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이를 활구(活句)라고 한다.

'살아 있는 말'로서 화두를 활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해야 할 것인가?

<선가귀감> 17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此事 如蚊子上鐵牛 更不問如何若何 下嘴不得處 棄牛一擲 而身透入

화두를 공부하는 일은 마치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에 올라타서 다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주둥이를 댄 수도 없는 곳에다가 죽을 각오로 무쇠를 단숨에 뚫어서, 자신의 몸통이조차 그 무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화두를 타파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떤 문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영역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고도 가르칠 수 없는 교외별전(敎外別傳)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 부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중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분별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고 했다. 관화선에서는 이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화두를 참구한다.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몸을 뚫는다는 것이 보통 상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늘 시비분별을 일삼고 살아가는 중생이 모든 생각을 끊고 화두에 몰입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불가사의한 일을 해내려면 고도의 정신집중이 필요하다. 시비 갈등으로 흐트러진 마음이 하나로만 모아진다면 어떤 일인들 이루지 못할 것인가? 화두란

가르침 믿어야 화두와 하나돼 마음 길 끊어질 때 깨달음 얻어

그런 것이다. 스승을 믿고 그 가르침을 철저히 믿는다면, 화두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화두 속으로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화두를 타파하려는 원력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팔볼 겨를이 없이 공부에 매진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할 일을 마친 대장부가 되지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중생이다. 그에 관해 고봉 스님은 <선요>에서 이렇게 말한다.

"화두 공부하는 일을 논하자면 마치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에 올라타서 다시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주둥이를 댄 수도 없는 무쇠 소의 몸을 죽을 각오로 바로 단숨에 뚫어, 자신의 몸통이조차 무쇠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러한 때가 백전만약 향수해(香水海) 가운데 있는 것과 같아서, 온갖 보물을 취해도 다 가

질 수 없고 그 보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다더라도 다 쓸 수가 없다.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공부 가 늘이지거나 쓸데없이 바쁘지만 하면, 설사 날아서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에 도달하게 되었다더라도 여전히 하나의 굶주린 모기일 뿐이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뜻을 거듭 거듭 다져 '활구(活句)'를 참구하는 사람들이 굳건한 원력으로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몽산 스님의 말을 <몽산법어> 챗머리에서 인용하였다.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不透 心路不絕 盡是依草附木精靈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할 것이요 묘묘한 깨달음은 마음 길이 끊어져야 할 것이니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마음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 모두가 풀과 나무에 붙어 사는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옛 스님은 "생사를 해탈하려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라고 했다. 무엇이 조사의 관문인가? 수산성념(首山省念) 스님은 "죽비라 해도 경계에 걸리고 죽비라 하지 않아도 틀렸다"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다.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작고 연약한 모기가 무쇠 소 몸을 뚫듯, 이 관문을 타파해 바른 안목을 얻고 천하의 기운이 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드러나 나와 남의 경계가 털갈만큼도 틈이 없고, 흐르는 시간의 처음과 끝이 현재의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관문이 돈오(頓悟) 경계이다.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요체는 '무(無)'자 화두를 타파하는 데 있다. 이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마음 가는 길이 끊어져서 오묘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조사의 관문을 뚫었다면 역대 조사와 손을 맞잡고서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행복동 사람들

믿음의 대상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엄마, 우리 구세방이 너무 힘들어 보여. 한 번만 더 믿어주라. 응?

아들 A/S 화살 하나에 허투루 부쳐주세요.

엄마, 딸은 화두도 없애고...

당뇨가 이럴까까지 친할뎠도록 할까요? 혈당도 높으시고...

응! 당뇨?

전문의

넌니, 근심만 말고 함께 부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 길로 이 살 길이지요.

그런가? 정말 절에 가서 기도하면 좋아질까?

다 이 모든 게 이 탄생을 끊어 줄 겁니다. 난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요즘은 건강이 어떠신지요? 보살님 개선 항지극합니다.

네, 스님. 진작 부처님을 믿을 걸 그랬나봐요. 다 부처님 덕이지요.

허걱허.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네요. 부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아~

부처님도 타인이지요. 결국 의지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진리입니다.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관불(灌佛)은 왜 하나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리 곳곳에 연등이 넘실대고, 절 집은 불자들이 일반인들로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봉축일은 어린이날과 겹쳐 나타난 의미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머리 위에 물을 부어서 목욕시키는 의식인 '관불(灌佛)'을 소개할까 합니다.

관불의식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제석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향수로써 몸을 깨끗이 씻어 드렸다는 설화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매년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 아름다운 꽃들로 꾸민 정자나 법당 한 가운데 아기 부처님을 모신 뒤 향수를 뿌립니다.

사실 이런 의식은 반드시 부처님 오신 날에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불교권에서는 평소에도 매일같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지요. 이런 관불의식은 1990년대까지 한국불교계에서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대중적인 축제의 장이 되면서 관불의식은 일반인들에게조차 낯설지 않은 행사가 됐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제2부 40강 혜능의 설명, 왜 여래는 없다 하는가

혜능은 육안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1. '수보리, 어의운하, 가이신상, 견여래부. 불야 세존. 불가이신상등견여래(須菩提, 於意云何. 可以身相, 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 밑에 혜능은 이런 설명을 붙여 두었다.

色身即有相, 法身即無相. 色身者四大和合, 父母所生, 肉眼所見. 法身者無有形段, 非有 青黃赤白, 無一切相貌, 非肉眼能見, 慧眼乃能見之. 凡夫但見色身如來, 不見法身如來. 法身量等虛空, 是故佛問須菩提, 可以身相見如來不. 須菩提知凡夫但見色身如來, 不見法身如來, 故言不也世尊, 不可以身相得見如來.

"색신(色身)은 상(相)이 있고, 법신은 그게 없다. 색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의 화합이고, 부모가 만든 것이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 법신은 물질이 아니고, 청황적백의 색깔도 없으며, 형체라고는 없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오직 혜안, 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여래만 볼 뿐, 법신의 여래는 보지 못한다. 법신의 몸피(體)는 허공과 같다.

그래서 부처께서는 수보리에게, '신상(身相), 즉 몸의 형태나 흔적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수보리는 범부들이 다만 색신여래만 볼 뿐, 법신여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닙니다, 세존 이시어, 여래는 몸의 형태나 흔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원효가 관음을 친견치 못한 이유 몇 가지 덧붙인다.

- 우리네 범부들은 여래가 사람의 몸을 하고, 특정한 '얼굴'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룩하고' '원만한' 얼굴을 소상(塑像)으로 새겨 불당에 안치해 놓았다.

그러나 붓다는 그런 인간적 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투영이고, 그것은 다만 내 그림자이지 여래의 본 모습은 아니다! 만해의 <님의 침묵> 서문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여래께서는 그런 '의지'와 '표상' 밖에서 계신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잡힐 리 없다. 보려고 하는 의지가 눈을 만들었으니, 삼계유식(三界唯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여(如如)하게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있는 그대로' 이신 여래는 인간

의 이목구비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32상 80중도의 신비한 표정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원효가 나산에서 관음을 못 만난 것은 바로, 그 분의 '몸'을 찾고, '얼굴'을 더듬고 지혜서이다. 그분은 금빛 광명을 발하는 얼굴로 오시지 않고, 개울가에서 맨소더리 위진 월경대를 세박하고 있었다. 이것을 모르고, 그분을 나산의 '동굴'에서 보려고 용을 썼지만, 그때마다 '파도'가 들어쳐서 그를 보지 못했다 한다.

여래의 선악은 다름 아닌 법신에서 말미암지, 색신이 짓는 것이 아니다. 법신이 악을 저지르면 색신은 좋은 곳에 못 나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색신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범부는 다만 색신만 볼 뿐, 법신을 보지 못해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행치 못하고, 일체처(一切處)에 평등행(平等行)을 행치 못하며,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하지 못한다.

"법신을 보는 자"는,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즉 일체 중생을 널리 경배하며 능히 반

신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의 미추는 얼굴을 따지지 않는다. 신분이 재력, 명예나 직위도 모른다. 법신, 즉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더도 덜도 없이, 공평 평등하게 있다! 이 마음 하나 잘 쓰면 다음 생에도 천상을 보장받지만, 마음 하나 엉터리로 쓰면 살아서 힘든 지옥을 견뎌야 한다.

법신을 본 자, 자기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비밀을 본 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전혀 다른

실천의 삶이 받아바라맞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보살이고, 여래이다."

혜능의 설명은 이어진다. "그 삶의 결을에서 그는 알게 된다. 진짜로 '얼굴'이 문제 아니라,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세속의 그 대단한 차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며, 그 바탕은 누구나 청정무구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성의 빛은 언제나 환하고, 또한 무한한 신비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그 빛을 다만 우리의 무지(無明)로 하여 보지 못했고, 오랜 윤회와 습기의 장애로 하여, 그 공능을 스스로 마비시켜왔을 뿐이라는 것을..."

아부의 노래

"여래는 없지만, 그러나 있다." "여래는 또한 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분은 '이미' 와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 그분은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고 있거나, 직장에서 나랑 성과와 업무스타일을 두고 다투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 늘 보는 가족의 울고 웃는 얼굴 속에 계시다.

이 역설을 아부의 송은 한꺼번에 읊고 있다.

治父: 山是山, 水是水, 佛在甚? 處, 有相有求俱是妄, 無形無見隨偏執. 堂堂密密何曾聞, 一道寒光樂太虛.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는 어디 있는가. 이미지(相)에 붙들려 있거나, '지금 여기' 너머를 추구(求)하는 것은 허망한 시도라네. 그렇다고 여래는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은 절망의 구렁텅이! 보라, 저기 뚜렷하고, 촘촘해서 한치 틈도 없는 것. 차가운 빛 하나가 태허(太虛)를 싸그리 태워 버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여래는 오지 않고, '이미' 여기에

여기 '동굴'은 자아 혹은 아상(我相)의 감옥을, 그리고 '파도'는 자신의 분별심, 그 오랜 심리적 장애들을 상징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관자재(觀自在), 자유롭게 사물을 보게 될 때, 여래와 관음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역시 얼굴이나 옷이 아니고 마음이다

2. "하이고, 여래소실신상, 즉비신상(何以故, 如來所說身相, 即非身相)에 대해 혜능은 이렇게 말한다.

六祖: 色身是相, 法身是性. 一切善惡盡由法身, 不由色身. 法身若作惡, 色身不生善處, 法身作善, 色身不墮惡處. 凡夫唯見色身, 不見法身. 不能行無住相布施, 不能於一切處行平等行. 不能普敬一切衆生. 見法身者即能行無住相布施, 即能普敬一切衆生, 即能脩般若波羅蜜行, 方信一切衆生同一眞性, 本來清淨, 無有垢穢, 具足恆沙妙用.

"색신은 상(相)이고 법신은 성(性)이다.

여래라 믿을 뉘다. 마침내 그는 믿게 된다. 일체중생이 같은 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본래 청정하여 때 하나 묻지 않았고, 그리고 항하사와 같은 묘용(妙用), 신비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 "여래는 몸으로 오지 않고, 법신이 얼굴이 없다"는 말에, 낙담하기는 이르다. 얼굴이 없다는 것이 존재가 없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혜능은 분명히 짚어준다. "법

태도를 키워갈 것이다.

그것은 성취와 실패, 이익과 손해 등의 도구적 속물적 삶을 누그러뜨리고, 존재의 부름에, 삶의 의미에, 교감과 배려에 근거를 둔 삶이다. 이를 혜능은 한 마디로 '무주상보시'라고 총지(總持)했다.

"아상 없이 아깁 없이 주는 삶을 살라...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 그